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초청
설선대법회 지상중계 ⑦

4월 16일

주제 -생사문제와 선수행



무여(無如) 스님은

- 1940년 경북 김천생.
- 화석 스님을 은사로 오대산상원사에서 출가.
- 동화사승광사해인사철불사망월사 등에서 40여년 수선 인거.
- 철불사망월사선원장역임.
- 1987년부터 봉화 추서사에서 제법남자지도.
- 현 조계종 기본선원 운영위원장.

생사문제는 선수행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심하는 것을 선(禪)의 시작이라 한다면, 깨달음을 얻어서 생사를 초탈하고 자재하는 것은 수행의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어요? 돈 명예 권세 행복 한 가정생활 가운데 그 어느 한 가지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인생의 대사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렬한 일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일입니다. 내가 없는 세상이 무슨 뜻이 있으며 얼마나 소용이 있었습니까?

요즘 KBS 방송중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다고 해요. 육신은 아무리 잘 먹고 관리하고 좋은 약을 써도 결국 목숨이 다하면 끝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병들지 않고 몇 년 생명이 연장될지는 몰라도 늙음과 죽음의 고통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생사문제는 외부의 어떤 힘이나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서도 면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있

간절하게 화두들면 생사 벗는 길 나와

說禪 무여 스님 (축서사 선원장)

다고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역경에서 헤탈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저 허공중에 구름이 일고 흩어지는 것으로 비유해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제행(諸行)은 무상(無常)'이고 '생자(生者)는 필멸(必滅)'이라 했습니다. 죽음은 가장 비참하고 괴롭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석승'보다 산 돼지가 낫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석승은 중국 진나라 때 아주 유명한 부자였답니다. 그런 석승도 죽으면 산 돼지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앞에서 괴로워하지 않고 눈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처님뿐 아니라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 생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출가의 길을 나왔습니다. 생사문제가 따로 불교에서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하답니다.

어떻게 하면 생사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답은 오직 주안공, 즉 마음을 잘 닦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잘 닦아서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삼매가 뭐냐? 심심이 일어(一如된 상태 즉,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과 하나가 되고, 화두하는 사람은 깊은 선정에 들어 화두와 내가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집심공양하고 막 염불한 것 같은데, 참선에 들었는데 실제로는 몇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것처럼, 자기의 존재나 시공을 초월한 상태를 삼매라고 합니다. 삼매경지를 지니서 언어도단(言語道斷) 신행처멸(心行處滅), 말길이 끊기고 마음작용이 멸한 그곳에 도달해야 참으로 생사를 초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됩니

다. 수행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최상승 수행이 바로 화두선입니다. 요즘은 화두선에 대해 이리저리러쿵 이야기 많이 하는 저는 자신있게 화두선이야말로 최고의 수행법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깨치면 바로 부처님의 경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화선이 뛰어난 겁니다. 이미 역대 조사와 천하 선지식들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간화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간화선 수행은 간절하게 의심을 일으켜서 환순간도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화두를 참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깨쳐서 생사를 초탈하는 것은 출·재가의 구별이 없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나는 신도이기 때문에, 나는 재가자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수행은 초학 후학이 없으며, 막 시작한 분이나 몇 십 년 공부한 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생의 혼순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깨치는 것은 오직 그 당사자의 포부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고 너무나 간절해서 마구 눈물이 날 정도로 간절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옛 어른들은, 며칠 굶은 사람이 밥 생각하듯, 어머니가 집 나가 아들 생각하듯 아주 간절하게 화두를 챙기라고 했습니다.

화두참구자는 행주좌와 어묵동경, 거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을 하거나 묵묵히 있거나 움직이거나 가만히 서 있거나 언제 어디서든 늘 환결함이, 머리에 타는 불을 끄듯이, 막 부모의 상을 당한 듯이 오직 화두만 들어가야 합니다. 한번을 들더라도 처음이 곧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예술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듯 정성껏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화두가 간절하게 들리면 선의 망상도 떠나게 되고 해태(懈怠) 방일(放逸) 무기(無記)에도 떨어지지 않아요. 간절함으로 화두를 들면 '일초직입여래지(一超直入如來地)', 한번 뛰어넘어서 여래지에 도달하는 큰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화두를 들 때는 열심히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화두참구할 때는 보통 공부한다는 사사로운 생각을 말고, 내 생사문제를 내가 근원적으로 해결한다는 바로 부처님의 경지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비참하거나 괴로울 때, 혹은 자신의 처지가 사면초가로 속수무책일 때 오직 나를 살릴 길은 오직 이 뿐이라는 생각으로 애쓰고 애써야 합니다.

이 공부는 자기 능력 이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도를 구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정성을 다 해라. 정성을 다하면 능히 '도과(道果)'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꿈을 꾸어도 화두참선 꿈을 꾸고 망상을 피우도 화두 망상을 피울 정도가 돼야 합니다. 어찌다가 괴로울 때 옛날 초등학교 시절 동요가 생각나면 그 동요 가락에도 화두가 울려야 됩니다.

이렇게 애를 쓰다보면 어느 순간 화두가 간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화두가 힘을 얻어요. 흔히 '득력(得力)'을 한다고 합니다. 화두에 힘을 얻을 때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심할 때는 목이 꼭 막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경지까지 가면 화두를 일부러 들지 않아도 절로 들어지고 의심하지 않아도 절로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놓으려해도 놓을 수가 없어요.

항상 소소영양하고 헌전합니다. 이와 같이 화두가, 의심이 간절해서 풀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진(眞觀)'가 닳다고 합니다. 이때 때아따로 용맹정진이 필요할 때입니다. <선오>를 쓴 고봉 스님은 학인들의 공부를, 깊은 연못에 빠진 기와장이 곧장 바닥으로 가라앉듯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애쓰다 보면 깨달음에 가까워집니다. 지혜가 나오고 '타성일련(打成一片)'이 되어서 참으로 생사를 해탈하게 됩니다. 이처럼 불교의 이상은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달아서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대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생사에 자재한 모습을 보인 옛 어른들의 일화는 수없이 많습니다. 삼조인 승찬 대사는 수많은 대중이 모인 가운데 법회를 열고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큰 나무 밑으로 가 합장한채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선불교가 활짝 꽃을 피웠던 당·송 시대는 무수한 도인들이 '경쟁하듯이' 저마다 '특이한' 모습으로 입적했습니다.

당시에 큰스님이 돌아가시면 절에 찾아온 객승의 첫마디는 '어떻게 돌아가셨는 지?'를 묻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선가에서는 죽음을 웃 같아입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조선시대 기화 스님은 죽음을 부스럼 딱지 없애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기도 했지요.

어려운 생사문제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명제이고, 극복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과제임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을 향한 수행을 열심히 해 죽음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난 해탈, 법신의 탄생, 열반의 기쁨을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너희들은 마땅히 알라. 모든 존재하는 것은 무상하다. 지금 건강한 몸이지만 무상하여 변하는 것을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해야 된다. 부지런히 공부해야 된다. 속히 생사의 불구덩이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일체중생 성정정 종래무생 무가멸 (一切衆生 性清淨 從來無生 無可滅)
여당일념 자지비 출단운고 생낙반 (汝當一念 自知非 忽斷輪苦 生樂般)

일체 중생의 성품이 청정해서 본래부터 생겨남도 멸함도 가히 없는 것.

그대가 만일 한 생각의 허물을 안다면 문득 윤회의 고통을 끊고 극락에 태어나리라.

정리=조용수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법회 전체 동영상중계 buddhanews.com

비디오·오디오 CD·테이프 구입은
범어사 (051)508-3636
현대불교신문 (02)732-1520

TwoTwo www.twotwocom.co.kr

사찰신도관리 전문프로그램

金剛壯士

- 200여 가지의 속력양식 지원 (축원, 등표, 위패, 봉투, 후원명서 등)
- 나이별 편지 발송 기능을 내장한 익강한 생일관리 기능
- 국내외 모든 우편물 양식을 지원하는 우편물 발송 기능
- 신도의 효율적 관리의 핵심, 행사관리(인등, 연등, 기타행사)
- 단위 사찰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회계관리 기능
- 영가위패를 한번에 입력, 출력, 관리하는 영가관리 기능
- 그 외 명함관리, 일정관리, 출력관리 기능
- 특정회원만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모뎀처리 기능
- 휴대용 문자메시지(SMS) 전송가능

저희 투투컴퓨터에서는 사찰신도관리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총단관리 프로그램, 납골당관리 프로그램, 회계관리 프로그램 등 고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문의가 있으시면 서울 투투컴퓨터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투투컴퓨터 서울 (02)585-1141 부산 (051)505-2434 대구 (053)563-9841 제주 (064)721-2434

수미산, 서역남로 대장정 31일

티베트 수미산 순례는 자기 성찰의 길입니다. 이번 순례는 티베트의 라사에서 수미산으로 그리고 곤륜산을 넘어 중국의 타크라마칸 사막을 지납니다. 이어서 실크로드 상의 서역남로의 길을 따라 호탄, 니야, 미란의 고대유적을 따라서 돈황석굴에 까지 이르는 대장정으로 이와 같은 대장정은 한마음 쉬고 가야하는 수행의 여정일 것입니다. 티베트와 중국의 대륙을 누비는 수행의 길에 동참하실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출발일 : 2005년 7월 5일 - 8월 4일 (31일간)
- 일 정 : 성도-라사-장체-시가체-라체-사가-파양-수미산-구계왕궁-알리-도마-다홍리탄-마자르-예청-호탄-민풍-체르첸-차르크리크-루오지양-하루고-돈황
- 안내 : 이상원 011-352-3321
- 문의 및 접수 : (주)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수미산 여행은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수미산여행은 수미산을 사랑하는 실크로드에 맡겨 주십시오.

